



관덕정

2014년 6월 27일(통권 제68호)

700-832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11(남산동) 전화 : (053)254-0151

팩스 : (053)253-0666 e-mail : yi@daegusaint.com

홈페이지 : <http://www.daegusaint.com>



103위 시성식
(1984년 5월)

124위 시복식을 기다리며

정의섭(마리노)
기획위원회

신앙 선조들에게 순교의 월계관을 씌워주신 주님
124위 새 복자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8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식 준비로 공동체 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과 시복식을 위한 기도, 시복식 참가 신청, 전대사 선포, 시복 경축 문화 예술제, 순교성월 복자 현양 운동, 순교자와 관련된 성지순례 등.

대구대교구에서도 이번 시복식에 1만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시복식 식장 입장 시간이 오전 7시까지여서 대구에서 출발하는 분들은 새벽 2시부터 준비를 해야 할 듯하다. 미사는 10시부터 시작되는데 참석자들은 시복식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다소간의 불편을 감소해야 할 것 같다.

30년 전의 103위 시성식 이후 한국 교회에 주신 큰 경사로, 신앙 선조들이 물려주신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복 준비기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생각한다.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바라시는 교황님이 방한하시어 “일어나 비추어라”(이사야서 60,1)를 주제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바쁜 일정을 보내신다.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 아시아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며, 우리가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한 124위 시복을 위한 미사를 광화문 광장에서 집

전하신다. 우리에게는 큰 은총과 감사의 시간이고,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리라 믿는다.

이번 시복식을 통해 그동안 뛰어난 덕행과 순교로 신자들의 존경을 받아온 ‘124위 하느님의 종’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자’ 칭호를 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구지역의 순교자로는 김종한 안드레아를 포함한 20위가 시복된다.

이러한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 고통, 시련, 죽음을 통하여 박해와 맞서 견디어 낸 순교신심을 물려주시고,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의연함으로 목숨 바쳐 증거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 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신다.

다가오는 8월 16일 시복식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순교자들의 행적과 삶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순교자의 후손답게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을 본받는 노력을 배가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한다.

"바로 지금 한 가지라도 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기쁜 마음으로 시복을 기다립시다."

한국의 모든 순교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교황님 방한의 뜻 깊은 시기에 감사드리며 ...

김 미 자(바울라)
홍보위원회

1984년 5월 여의도 광장은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대회와 103위 순교자들의 시성식 미사가 당시 교황님이셨던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때 중학생이었던 나는 TV를 통해서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았고,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지금은 성인으로 시성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성하께서는 대구에도 오셔서 청소년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셨는데, 가까운 곳에서 뵈는 교황님의 온화한 모습에 우리의 열광은 극에 달했다. 신자들은 교황님의 사진이 담긴 책받침과 손을 흔들면서 '비바 일 파파!' (Viva il Papa! 교황 성하 만세!) 를 외쳤었다.

그로부터 꼭 30년만인 올해 현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신다. 한국천주교회가 요청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식을 위해서 친히 한국 땅을 밟기로 하신 것이다. 우리 교우들에게는 큰 영광의 날이다. 이번에 시복되는 124위 순교자들 중에서 김종한 안드레아를 포함한 20위는 대구교구분이다. 순교자 기념관인 관덕정으로서는 참으로 영광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약하나마 관덕정의 봉사자로 참여해 온 한 사람의 신자로서 늘 기도해 온 우리의 소망이 허락되어 진 것이라 생각하니 감사와 찬미의 기도가 절로 나오고 기쁨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선조 순교자들의 신앙을 모범으로 예를 든다. 신앙의 선조들은 참혹한 박해의 고통속에서도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 없이 오직 하나 천주의 뜻만을 따르고자 했다. 또 그 정신 안에서 서로 평등하게 돕고 사랑하며 살다

가 마침내 순교의 월계관을 기꺼이 받으신 분들의 모범은 시대를 거슬러 생생하게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사실이다.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고 눈물나는 초기 신앙공동체의 나눔과 배려, 기도에 대한 열심과 성사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오늘날 편하고 안 일하게 신앙 생활하는 나를 끊임없이 일깨우고 가르쳐 주신다. 내가 머무는 작은 공동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되, 또 그 공동체를 넘어서서 더 큰 주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아야 됴를 가르쳐 주신다.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 신앙을 증거하는 한마디를 외칠 때의 흔들림 없는 자세와 순교의 칼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강인함을 현재 나는 어떤 부분에서 드러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과거와는 다른 신앙생활의 조건에서 우리가 유혹 받는 부분은 무엇이며, 당시와는 다른 박해의 요소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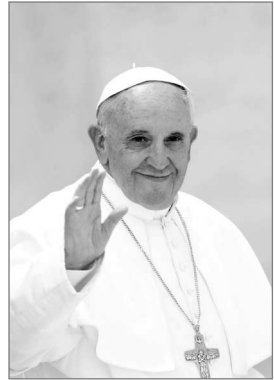
우리 교황님은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깊으시고, 청빈하고 겸손한 삶의 실천적 모습이 배여 있으시며, 겸손함과 유머와 덕을 갖추신 분으로 존경받고 계신다. 이런 교황님께서 쓰신 「복음의 기쁨」은 여러 가지 사회의 악폐와 부조리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에 정의와 기쁨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그 씨앗을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열매 맺게 하는 데에 우리 각자가 뜻을 함께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말로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아닐까 싶다.

올 여름, 서울 광화문 광장은 8월의 뜨거운 태양 빛이 무색할 만큼 한국천주교회의 신앙의 불꽃이 타 오를 것이다. 나 또한 30년전 교황님을 가까이 뵈었던 그 순수한 소녀의 믿음에서 보다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로 함께 하고자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시복 경축 행사 안내

관덕정순교기념관은 8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방문과 시복식을 앞두고 순교신심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한다.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였는데, 단체 예약 순례자를 위한 프로그램, 일반 순례자를 위한 프로그램,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단체 예약 순례자를 위한 프로그램부터 살펴보면 천국으로의 행진, 순교자와 듣는 교회음악의 초대, 20위 성화전시회, 전국성지순례 피정, 다시 만나는 순교자 20위의 영성, 주일학교 학생 백일장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천국으로의 행진은 당시 순교자들이 참수를 당하기 위해 관덕정 형장을 향해 걸으셨던 그 심정을 묵상하며 경상감영에서 관덕정까지 도보순례를 하는 것으로 본당이나 단체 등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순교자와 듣는 교회음악의 초대는 순교자와 관련한 다양한 장르의 교회음악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다. 20위 성화 전시회는 시복되실 대구대교구 20위 순교자 성화를 통해 순교자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반순례자를 위해서는 순교자 약전과 묵상글 읽기, 순교자에게 편지쓰기, 교리서 필사하기 등을 마련하고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는 반월당 지하 메트로상가에 포토존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사무실(053-254-0151)로 연락하면 된다.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성명	세례명	순교지
1 윤지충	바오로	전라도 전주
2 주문모	아고보	서울 새남터
3 권상연	아고보	전라도 전주
4 원시장	베드로	충청도 홍주
5 윤유일	바오로	서울 포도청
6 최인길	마티아	서울 포도청
7 지항	사바	서울 포도청
8 이도기	바오로	충청도 정산
9 방	프란치스코	충청도 홍주
10 박취득	라우렌시오	충청도 홍주
11 원시보	아고보	충청도 청주
12 정산필	베드로	충청도 덕산
13 배관검	프란치스코	충청도 청주
14 인언민	마르티노	충청도 해미
15 이보현	프란치스코	충청도 해미
16 조용삼	베드로	경기도 감영
17 최창현	요한	서울 서소문밖
18 정약충	아우구스티노	서울 서소문밖
19 홍고만	F. 하비에르	서울 서소문밖
20 최필공	토마스	서울 서소문밖
21 홍낙민	루카	서울 서소문밖
22 최창주	마르첼리노	경기도 여주
23 이충배	마르티노	경기도 여주
24 원경도	요한	경기도 여주
25 윤유오	아고보	경기도 양근
26 최필제	베드로	서울 서소문밖
27 윤운해	루치아	서울 서소문밖
28 정복해	칸디다	서울 서소문밖
29 정인혁	타대오	서울 서소문밖
30 정철상	가롤로	서울 서소문밖
31 심아기	바르바라	서울 포도청
32 강완숙	콜롬바	서울 서소문밖
33 강경복	수산나	서울 서소문밖
34 김현우	마테오	서울 서소문밖
35 문영인	비비아나	서울 서소문밖
36 김연이	올리안나	서울 서소문밖
37 이현	안토니오	서울 서소문밖
38 최인철	이나시오	서울 서소문밖
39 한신애	아가타	서울 서소문밖
40 윤점해	아가타	경기도 양근
41 정순매	바르바라	경기도 여주
42 김이우	바르나바	서울 포도청
43 이국승	바오로	충청도 공주
44 김광옥	안드레아	충청도 예산
45 김경득	베드로	충청도 대흥
46 한정흠	스타니슬라오	전라도 김제
47 김천애	안드레아	전라도 전주
48 최여검	마티아	전라도 무장
49 김종교	프란치스코	서울 서소문밖
50 홍필주	필립보	서울 서소문밖
51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전라도 전주
52 윤지현	프란치스코	전라도 전주
53 유충철	요한	전라도 전주
54 유문식	요한	전라도 전주
55 현계흠	플로로	서울 서소문밖
56 김사진	프란치스코	충청도 청주
57 손경윤	제르바시오	서울 서소문밖 (새남터)
58 이경도	가롤로	서울 서소문밖 (새남터)
59 김계완	시몬	서울 서소문밖 (새남터)
60 정광수	바르나바	경기도 여주
61 홍익만	안토니오	서울 서소문밖 (새남터)
62 한덕운	토마스	광주 남한산성

성명	세례명	순교지
63 황일광	시몬	충청도 홍주
64 홍인	레오	경기도 포천
65 권상문	세바스티아노	경기도 양근
66 이순이	루갈다	전라도 전주
67 유충성	마테오	전라도 전주
68 김진후	비오	충청도 해미
69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나	경상도 대구
70 김시우	알렉시오	경상도 대구
71 최봉한	프란치스코	경상도 대구
72 서석봉	안드레아	경상도 대구
73 김창이	시몬	강원도 원주
74 김희성	프란치스코	경상도 대구
75 구성열	바르바라	경상도 대구
76 이시임	안나	경상도 대구
77 고성대	베드로	경상도 대구
78 고성운	요셉	경상도 대구
79 김충만	안드레아	경상도 대구
80 김화춘	아고보	경상도 대구
81 조숙	베드로	서울
82 권천례	테레사	서울
83 이경언	바오로	전라도 전주
84 박경화	바오로	경상도 대구
85 김세박	암브로시오	경상도 대구
86 안군심	리카르도	경상도 대구
87 이재행	안드레아	경상도 대구
88 박사익	안드레아	경상도 대구
89 김사건	안드레아	경상도 대구
90 이일언	율	전라도 전주
91 신태보	베드로	전라도 전주
92 이태권	베드로	전라도 전주
93 정태봉	바오로	전라도 전주
94 김대권	베드로	전라도 전주
95 최해성	요한	강원도 원주
96 김조이	아나스타시아	전라도 전주
97 심조이	바르바라	전라도 전주
98 이봉금	아나스타시아	전라도 전주
99 최	비르지타	강원도 원주
100 홍재영	프로타시오	전라도 전주
101 최조이	바르바라	전라도 전주
102 이오이	막달레나	전라도 전주
103 오종례	아고보	전라도 전주
104 이성례	마리아	서울 당고개
105 오반지	바오로	충청도 청주
106 신석복	마르코	경상도 대구
107 김원중	스테파노	충청도 공주
108 장	토마스	충청도 청주
109 구한선	타대오	경상도 함안
110 정찬문	안토니오	경상도 진주
111 김기량	펠릭스베드로	경상도 통영
112 박상근	마티아	경상도 상주
113 송	베네딕토	서울
114 송	베드로	서울
115 이	안나	서울
116 이정식	요한	경상도 동래
117 양재현	마르티노	경상도 동래
118 이양등	베드로	경상도 울산
119 김충륜	루카	경상도 울산
120 허인백	아고보	경상도 울산
121 박경진	프란치스코	경기도 축산
122 오	마르가리타	경기도 축산
123 박대식	빅토리오	경상도 대구
124 윤봉문	요셉	경상도 전주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 시복과 관련 된 교구 순례지 지정

지난 5월 17일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님께서 대구 복자성당에서 주례한 미사를 통해 전대사를 반포했다. 이번 전대사는 교황 방한과 124위 시복식을 앞두고 순교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삶을 본받자는 뜻에서 이뤄진 것이다. 대구대교구내 전대사 순례지는 관덕정순교기념관, 복자성당, 진목정 성지이다.

국내 성지순례

4월 27일(일) 광주대교구 순교자기념성당을 순례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순례단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지향을 가지고 조용한 마음으로 순례를 했다.

5월 18일(일) 해미성지에서 미사참례를 한 후 읍성을 순례했다. 6월 15일(일)에는 미리내성지를 순례했다. 45명의 순례단은 이윤일 성인이 모셔져있던 무명순교자묘역도 참배했다.



순교자기념성당



해미성지



미리내성지

시복기원 성지순례

시복기원 성지순례는 4,5,6월에도 계속 되었다. 4월 10일(목)에는 신부님을 포함한 45명의 순례단이 강원도 지역을 순례하며 금광리 공소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공소 신자들은 이렇게 많은 순례자들이 함께 와서 미사하기는 처음이라며 기뻐하였다. 5월 8일은 여우목을 비롯한 안동 지역을 순례했고 6월 12일에는 충청도 남쪽지역과 나바위 성지를 순례했다.



금광리 공소



여우목 성지

교회사 강좌

지난 4월 5일(토) 정길택(이나시오) 운영위원이 “김종한 안드레아의 생애와 영성”



정길택(이나시오)



이순금(모니카)

에 대해, 5월 3일(토)에는 이순금(모니카) 운영위원이 “고성대 베드로와 고성운 요셉의 생애와 영성”에 대한 강좌를 통해 우리 순교자들의 좀 더 깊은 면모를 전해주었다.

관덕정 영성 강좌

6월 7일(토) 서강대학교에 계신 서명원(베르나르도) 신부님께서 영성특강을 해주셨다. 신부님께서서는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사는 게 어떠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성령강림절을 맞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폭 넓은 강의를 해주셨다.



서명원(베르나르도) 신부님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관덕정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 위령미사를 봉헌해 주셨다.

이태득 요안나 자매님 주님 품으로

관덕정 제대 청소를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시고 20여년을 한결같이 봉사해 주시던 이태득 요안나 자매님께서 지난 5월 2일 선종하셨다. 자매님은 집에서 걸레를 삶아 와서 매번 새하얀 걸레로 제대를 청소해주신 고마운 분이셨다.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22일부터 2014년 6월 21일 기간 안에 후원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평생 회원

故구수명	故구자현	故권소정	故권영준	故김남이	故김숙하	故김순근	故김순남
故김연경	故김유신	故김이수	故김종명	故김진용	故도소희	故박만순	故백금남
故백조앤	故서덕수	故송재식	故여기연	故이광호	故이명순	故이상호	故이지영
故이추자	故임원섭	故임진식	故장세증	故정길환	故정남기	故정영숙	故주병환
故주종원	故진이수						
강두복	강정희	권명선	권순식	김소향	김영자	김인숙	노인자
레탄평	문영일	박안젤라	배재수	백그레이스	백세종	서달혜	석순자
성동진	성하영	손영규	송선희	송필순	이무선	이복희	이종해
이종현	이화선	정상임	정영춘	조정숙	최규호	최잠생	한성식
한옥화	한은선	한은정	홍윤순				

가족 회원

강대근가족	강춘화가족	권미정가족	금 찬가족	금 훈가족	김영득가족
김영숙가족	김영희가족	김은화가족	김인숙가족	김정강가족	김정현가족
김정환가족	김종엽가족	김종운가족	김지수가족	김현준가족	노 옥가족
노재희가족	류진춘가족	박경진가족	박광범가족	박기석가족	박민호가족
박병화가족	박선녀가족	박양옥가족	박용희가족	박원석가족	박윤현가족
박장원가족	박재석신가족	박창우가족	박화수가족	박희향가족	배정경가족
서난향가족	서성교가족	손춘자가족	손효식가족	신수영가족	신정향가족
신혜성가족	안상현가족	여운옥가족	연동녕가족	오연숙가족	윤성민가족
윤정순가족	윤종문가족	윤현경가족	윤희숙가족	이강범가족	이길자가족
이수자가족	이창수가족	이태연가족	이태호가족	이화선가족	임말레가족
장병영가족	장숙자가족	장휘지가족	정명숙가족	정병선가족	정상임가족
정화숙가족	조정자가족	주재중가족	최경식가족	최용환가족	최점순가족
현은주가족	현진환가족	홍태숙가족	황수진가족	황원희가족	

일반 회원

강명선 구이분 김명희 김삼분 김소봉 김영욱 김영자 김재화 김정섭 김지혜
 김진홍 김진희 김학열 류춘현 민완기 박광현 박귀상 박동립 박성예 박용일
 박용택 박정련 박지훈 박태분 배복경 배윤택 신만우 신희원 안성섭 안승각
 안영재 오정욱 이덕선 이무선 이미자 이영순 이윤홍 이조자 이종섭 이종순
 이춘선 이현주 이호자 임태건 장진숙 전화선 정영애 제현희 채수희 최길현

※ 성함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

관덕정에서는 순교자현양사업과 순교 신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 현양 운동과 각종 유물의 발굴, 조사, 연구, 전시, 보관하기 위한 노력에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방법

-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 053)254-0151번이나 015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세례명, 본당과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방문하셔도 됩니다!
-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평생회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명함판 사진(없으시다면 얼굴이 잘 나온 일반 사진도 가능) 2매를 준비 해 오시면 됩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회원님께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후원회원들을 위한 생미사와 세상을 떠난 평생회원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함께 봉헌됩니다. 망자가 되신 분을 평생회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이외에 평일미사에 위령미사를 3대 봉헌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께 순교자 현양 및 신심운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덕정순교기념관의 소식이 담긴 회보를 3개월마다 보내드립니다. 순교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연말 세금공제를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금 납입방법

- 납부계좌 : 대구은행 006-10-011249 (예금주 : 대구관덕정순교기념관)
 - ※ 회비를 송금해 주시는 분들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송금 후 꼭 사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자동이체 : 거래하시는 은행에 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저희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 ※ **자동이체 신청 후에도 사무실로 꼭 연락주십시오.**
 - ※ 자동이체 신청시 일반회원 : 월 2,000원
 가족회원 : 월 5,000원

■ 후원회비

- 일반회원 : 연 20,000원
- 가족회원 : 연 50,000원
- 평생회원 : 연회비 없이 일백만원 이상을 기탁

- 관덕정 미사안내 -

- 화요일 : 오전 10시
- 금요일 : 오후 3시(순교자현양미사)
- 토요일 : 오후 5시(특전미사)

※ 첫째 주 토요일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